

펭귄의 교훈 (8/6/2012)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는 누구일까? 그는 좁은 일본식 주택에서 살면서, 맛있는 영국 음식을 먹고, 드세기로 소문난 미국 여자와 사는 남자라고 한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누구일까? 그는 넓은 미국식 저택에서 살며, 온갖 맛있는 중국음식을 먹으며, 애교 만점인 일본여자와 사는 남자라고 한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내 경험으로는 일본의 주거환경은 정말 최악이다. 40 대 시절에 일본 중견 기업들과 한국 총판계약을 맺고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 그 때 일본 중역들 집을 초빙받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내심 놀랐다. 임원들 사택들은 공간이 너무 작고 심지어 다다미에서 기생하는 벌레로 곤욕을 치룬적도 있다. 화장실이며, 욕실, 주방등 거주 공간들이 너무 좁아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었다. 영국 음식은 못먹어 보았지만 이곳 미국 음식과 중국, 한국, 일본 음식을 비교해도 서양 음식은 품격이 한참 떨어진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행복지수는 어떠한가. 대부분이 미국식 저택(?)에서 살고 있고, 음식도 한국식이면 세계 수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음식 종류며, 맛이며 음식 가격등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같이 사는 여자는 지금의 한국 아내와만 살아봐서 다른 나라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여자가 더세다면 외국 여자 대부분이 만만찮을 것이다. 미국에 사는 한국 여자는 미국 여자인가, 한국여자인가, 그래서 더세계 느껴지는걸까... 또 일본 여자라고 모두 애교가 많다면 큰 착각이다. 그리고 일본 여자가 인기가 많으면 한국 여자도 못지 않게 인기가 많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여자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일테니까 지금의 한국 마누라면 감사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들은 집, 음식, 여자 모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들이 되는건가?

그런데 세상에 가장 불쌍한 남자가 또 있다. 남극의 펭귄이다. 언젠가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남극의 눈물> 4 부작을 방송한 적이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환경 프로그램이었는데, 남극의 펭귄들 숫자가 지난 50 년간

70%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방송에 황금빛 깃털을 가진 <황제 펭귄>들의 일생이 나온다. 특히 <아빠 펭귄>의 일생은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 펭귄>들은 겨울이 올 무렵에 짝짓기를 한다. 그들은 길게 무리를 지어 며칠동안 ‘오모크’라는 은밀한 장소로 이동을 한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모인 펭귄들은 암수가 한쌍을 이루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펭귄은 일년에 한개의 알만 낳는다. 알을 낳은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넘기고 먹이를 구하러 떼를 지어 바다로 나간다. 먹이를 찾아나선 암컷들은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 왜냐하면 바다사자가 물에 뛰어드는 펭귄을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눈치를 보다가 그중 용감한 펭귄 한마리가 물에 뛰어 들어 바다사자의 먹이가 되면 줄줄이 그 뒤를 이어 바다에 뛰어든다. 마케팅 이론에서 서로 눈치 보는 것을 <펭귄 효과>라고 한다. <펭귄효과>는 특히 한국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람은 성능을 보고,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을 보고, 프랑스 사람들은 디자인을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암컷들은 바다에서 싱싱한 물고기들을 잡아 먹으면서 몸을 푼다. 한참동안을 먹고 놀면서 기력을 회복하면 수컷과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뱃속에 물고기를 최대한 잔뜩 집어넣고 돌아온다. 암컷이 늦게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수컷과 새끼는 굶어죽고 만다. 그동안 영하 60 도의 혹한 속에서 수컷 펭귄이 겪는 고통은 눈물겹다. 수컷은 알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서 털로 덮어 부하시킨다. 새끼가 알에서 깬 다음에도 수컷은 잠시도 새끼를 얼음 위에 내려놓지 않고 품어서 키운다. 새끼가 품에서 밖으로 나와도 수컷의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알에서 깨어난 펭귄은 수컷 펭귄이 토해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란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오직 새끼만 먹이면서 암컷이 먹이를 구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앉지도 눕지도 못한다. 서 있어야만 한다. 그러는 동안 수컷은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암컷을 기다리는 동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을 피하는 방법은 모든 수컷들이 원둘레 모양으로 겹겹이 에워싼다. 물론 맨 바깥원에 있는 펭귄들이 가장 춥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가 조금씩

움직인다. 강강술레 처럼 바깥에 있는 무리들은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무리들은 바깥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함이다. 만약 사람들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나혼자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안쪽의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서로 죽이고 죽지 않았을까. 지금의 불경기를 남극에 비유하자면 <공생공존>하는 법을 <황제 펭귄>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서로가 바람막이가 되어야지 혼자만 살겠다고 가격덤핑을 하면 모두가 얼어 죽는다.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은 새끼를 어미에게 인수인계하는데 그러고서도 한참을 새끼 주위를 맴돌며 떠나지 못한다. 세상 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미가 알까, 새끼가 알까. 알에서 깨어난지 6 개월이 지나면 새끼는 부모곁을 떠나는데, 먹이를 구하기 쉬운 여름철에 떠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장 헌신적인 아버지를 펭귄의 수컷에 비유한다. 경기가 어렵고 집안이 어려울수록 아버지가 담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어깨가 위축되고 의기소침하면 약한 어미와 어린 새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한들 가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함께 살아야 한다. 한인 수컷들끼리 서로가 바람막이가 되어 이 엄동설한을 견디어보자...